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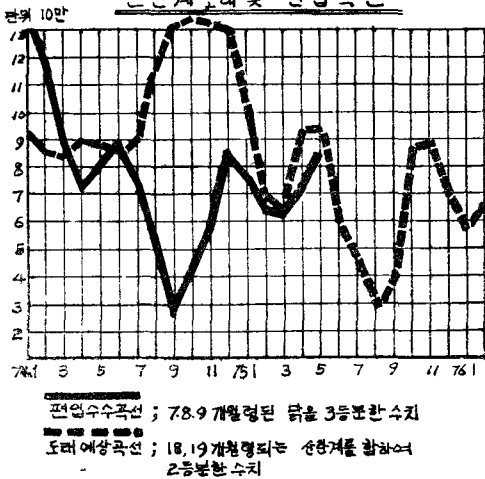
# 계란 시장

서울지역의 계란시세 (원/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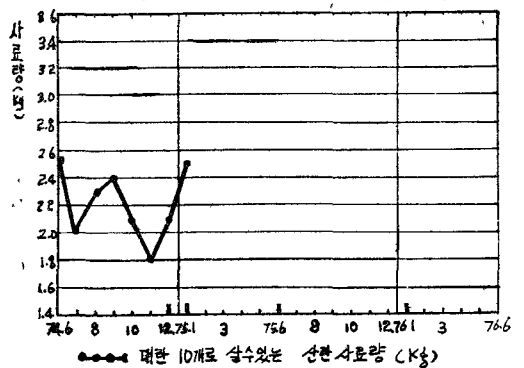
지역	청량리지역		천호동지역		경인지역		대구지역		평균	
	특란 60g이상	대란 54~59g	특란 60g이상	대란 54~59g	특란 60g이상	대란 54~59g	특란 60g이상	대란 54~59g	특란 60g이상	대란 54~59g
1974년 7월										
7월	201	173	196	168.6	197	169	197	176	197.8	171.7
8"	207	177	205	175.4	206	175.5	207	179	206	176.7
9"	227	204	228	203	230	204.6	227	205	228	205
10"	220	200.5	215	199	217	198	231	207	220.8	201
11"	172	143	171	143.8	167	141.2	176	150	171.5	144.5
12"	193	165.9	194	166.1	199	167	200	170.8	196.5	167.5
1975년 1월										
1월 6일	185	165	185	167.5	185	165	190	175	185.8	168.5
7	188	168	190	172.5	200	190	190	175	190.8	174
10	195	175	195	175	205	190	205	185	198	179
14	205	185	207.5	187.5	210	200	210	190	207.5	189
17	210	190	210	192.5	220	210	210	195	211.6	195
20	220	200	230	210	230	210	235	215	222.5	222.5
23	230	210	230	210	240	220	235	215	232.5	212.5
27										

※ 대한양계협회에서 조사한 서울지역의 계란가격은, 청량리지역은 청량리계회와 청량리가축, 합일농장의 평균이며 천호동지역은 천호계회와 선린촌, 경인지역은 소신, 대구지역은 대구축협의 계란가격을 매일 조사하여 평균한 가격이다.

산란계 도태 및 편입곡선



대란 10개로 살수있는 사료량



위표로서 어느시점에서의 편입수수와 도태수수의 차이를 알수 있으며 따라서 계란 생산량의 증감을 알수 있다.

이 곡선으로 사료값에 대한 계란가격의 가치를 쉽게 알수 있다. 계란 10개로 살수 있는 사료량의 곡선이 올라 갈수록 양축가에게는 유리하다.

## 공급의 절대량 부족으로 대란 22원대까지 오를듯

작년 12월 중 대란가격은 16원대에서 머물던 것이 신년도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17원 50전선으로 올른 후 매일 꾸준히 상승하여 1월 중순경에는 19원 50전으로 20원대까지 상승되었고 특란은 22원까지 이르렀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12월, 1월중 난가는 일년중 상당히 저조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대란 22원대까지 이르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예상에 없이 좋은 난가를 형성하는 것은 전체수요가 증가되는데 기인했다기 보다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한 상태이며 사료비 및 제반물가인상과 구정을 앞두고 중간도매상과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감소되게 된 것은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월, 1월중 계란생산량이 1억 4천 3백만개로 절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12월중 편입이 74만수로 예상되는 반면 도태는 130만수로 예상되어 거의 산란계수가 60만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공급에 절대량이 부족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사료비가 14%정도 인상되어 노계의 도태가 예상외로 늘어날 것 같다.

